

아세안 창설 50년의 성과와 과제

조대현 수석연구원, 글로벌연구센터 (chodh@posri.re.kr)

목차

1. 아세안 창설의 배경과 역사
2. 아세안 50년의 변화
3.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과제
4.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이 올해로 창설 50주년을 맞이함
 - 베트남전 본격화,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주의 확산 등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5개국으로 공식 출범('67). 이후 베트남 등의 참여로 현재의 10개국 체제 완성
 - 출범 초기 정치·경제·안보 등의 지역협력체에서 아세안 금융위기를 계기로 지역공동체로 확대 발전하였고, 2015년에는 아세안공동체 출범
- 아세안은 50년간의 성장을 통하여 인구 6.34억 명, 경제규모 세계 6위, 교역규모 세계 4위의 유망 경제권역으로 부상하였고 도시화율, 평균수명, 교육수준 향상 및 빈곤율 감소 등 삶의 질 향상
 - 경제규모는 U\$225억('67)에서 U\$25,485억('16)으로 113배, 인당 GDP는 U\$122에서 U\$4,021로 33배, 교역규모도 U\$22,185억('16)으로 229배 증가
 - 50년 동안 도시화율은 21.5%에서 49%, 평균수명은 56세에서 71세로 증가하였고, 빈곤율은 39%('95)에서 14%('15)로 감소
- 아세안이 지향하는 경제성장과 개발격차 해소를 위해 아세안 연계성 (ASEAN Connectivity) 강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이 최우선 과제로 부상
 - ADB는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아세안의 인프라 수요가 U\$31,470억, 특히 인도네시아가 전체 수요의 39%인 U\$12,290억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아세안도 '아세안연계성 마스터플랜2025'를 채택하고, 실행력 강화방안 마련 중
- 급성장하는 인프라 시장을 둘러싼 중·일의 수주전쟁이 심화되고 있음
 - 중국은 향후 10년간 정부 재원 U\$1조를 아세안을 포함한 65개 국가의 인프라 건설에 지원하는 등 자금력을 바탕으로 자국기업 참여 기회 확대 추진
 - 일본도 ADB와 협조해 향후 5년간 아세안에 U\$1,100억을 지원할 계획. 또한 중국의 자금력에 대응하기 위해 'Quality Infrastructure' 전략으로 전환
- 아세안은 한국의 제2 건설시장으로 중·일과 차별화되는 비교우위 전략 필요
 - 인프라 사업 재원조달 방안으로 ODA, 한-아세안 협력기금, 한-메콩 협력기금 등 산재되어 있는 개발재원의 연계·활용 방안 검토
 - 아세안이 연결성 강화를 위해 제시한 5대 전략의 핵심은 디지털과 인프라로 한국이 우위에 있는 디지털 분야를 접목, '스마트 인프라' 전략 마련 필요
 - 각국의 교통, 전력, 신도시개발 정책 등의 입안에 참여, 추가 사업기회 확보
 - 중국 및 일본이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파트너로 참여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

1. 아세안 창설의 배경과 역사

□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아세안이 올해 창설 50주년을 맞이함

- 아세안(ASEAN)은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의 약자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을 의미
- 베트남전 본격화, 인도차이나 반도의 공산주의 확산 등 주변 정세 급변에 공동 대응하기 위하여 1967년 8월에 5개국이 ‘방콕선언’ 발표, 공식 발족
 - 초기 참여 5개 국가: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 이후 브루나이(’84), 베트남(’95), 라오스와 미얀마(’97), 캄보디아(’99)가 회원국으로 참여하여 현재의 10개국 체제 완성

□ 정치·경제 등의 ‘지역협력체’에서 결속력이 강화된 ‘지역공동체’로 발전

- 지역협력체 기반 강화(~1980년대): 평화·공동안보, 경제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추진 및 아세안 고유의 운영 체계인 ‘ASEAN Way’ 확립
 - 평화·자유·중립 지역선언(ZOPFAN, ’71): 역외 강대국의 개입과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아세안 구현
 - 아세안 협력선언 I (’76): 정치·안보·경제 등 전방위 협력과 단결 표명
 - 이후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아세안 산업프로젝트(’76), 아세안 특혜무역협정(’77), 아세안 산업보완계획(’81), 아세안 투자보호협정(’87) 등 체결

ASEAN Way

- 아세안의 핵심 운영 원칙
- ‘국가 주권 존중과 상호 내정 불간섭’, ‘비공식적 외교’, ‘회원국 간 정책에 대한 공개적 비판 금지’, ‘조정 및 합의(만장일치제)에 의한 정책결정’ 등으로 구성

- 지역공동체로 확대 발전(1990년대~): 경제통합과 공동체 구현을 위한 지속적 노력의 결과 2015년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 출범
 -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창설(’92)로 관세율 5%로 인하, 1999년 3차 회의에서 선발 6개국은 2010년, 후발 4개국은 2015년까지 관세철폐 합의
 -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계기로 실질적 정치·경제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었음

- 아세안 비전 2020('97), 아세안 통합 이니셔티브 및 아세안 협력선언 II('02), 세부선언('07) 등을 통해 회원국 간 발전격차 해소와 아세안공동체 출범을 2020년에서 2015년으로 앞당기기로 결정
- 이후 아세안공동체 로드맵('09), 아세안연계성 마스터플랜('10), 네피도 선언('14) 등 공동체 구축 가속화 노력의 결과, 2015년 아세안공동체 출범

아세안공동체(ASEAN Community)

- 아세안경제공동체(AEC), 아세안정치안보공동체(APSC), 아세안사회문화공동체(ASCC) 등 3개의 공동체로 구성
- 특히 ▶ 단일 시장/생산기반 구축, ▶ 경쟁력 있는 경제블록, ▶ 공정한 경제발전, ▶ 세계경제로의 통합을 추구하는 아세안경제공동체는 향후 아세안이 거대 경제블록으로 발전할 기반으로 평가

2. 아세안 50년의 변화

□ 경제규모 세계 6위, 교역규모 세계 4위 등 지속 성장하는 유망 경제권역으로 부상

- 경제규모(GDP)는 1967년 U\$225억에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함께 2016년에는 U\$25,485억으로 113배 증가
 - 10개국 체제가 시작된 1999년 U\$5,765억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고 전 세계에서 비중은 3.3%('67), 4.8%('99), 6.2%('16)로 증가
 - 인당 국민소득은 1967년 U\$122에서 2016년 U\$4,021로 33배 증가
- 상품 교역규모는 글로벌 가치사슬 편입으로 1967년 U\$970억에서 2016년 U\$22,185억으로 229배 증가
 - 수출은 U\$440억('67) → U\$3,546억('99) → U\$11,418억('16)으로 257배 증가, 전 세계에서 비중은 2.0%('67), 6.2%('99), 7.2%('16)로 상승
 - 수입은 U\$53억('67) → U\$2,938억('99) → U\$10,767억('16)으로 205배 증가, 전 세계에서 비중은 2.3%('67), 5.0%('99), 6.6%('16)로 상승
 - 수출 중심의 경제성장 전략으로 1999년부터 상품 무역수지 흑자 전환

○ 외국인투자 유입도 소비시장 및 생산기지로서의 매력도가 높아짐에 따라
1984년 U\$30억에서 2016년 U\$957억으로 31배 증가

-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연평균 U\$1,000억 이상 유입되었고 2013년에는 U\$1,330억으로 최대 기록

〈표 1. 경제부문 성과〉

	1967	1984	1995	1997	1999	2005	2010	2016
참여국	ASEAN5	ASEAN6	ASEAN7	ASEAN9	ASEAN10			
GDP (U\$억)	225	2,155	6,476	7,158	5,765	9,362	19,263	25,485
GDP 비중(%) (전세계 대비)	3.3	3.6	5.1	5.3	4.8	5.2	5.6	6.2
인당 GDP(U\$)	122	765	1,556	1,462	1,135	1,701	3,268	4,021
수출(U\$억)	44	765	3,021	3,529	3,546	6,480	10,516	11,418
수출 비중(%) (전세계 대비)	2.0	3.9	5.8	6.3	6.2	6.2	6.9	7.2
수입(U\$억)	53	729	3,239	3,661	2,938	5,766	9,575	10,767
수입 비중(%) (전세계 대비)	2.3	3.6	6.1	6.4	5.0	5.3	6.2	6.6
무역수지 (U\$백만)	Δ 805	3,626	Δ 21,829	Δ 13,241	60,823	71,362	94,112	65,130
FDI 순유입 (U\$백만)	N/A	3,041	28,164	34,082	27,375	43,878	108,174	95,732

자료: ASEAN Secretariat (2017)

□ 사회: 인구 6.34억 명으로 전 세계의 8.5% 점유, 경제활동 가능인구, 도시화율, 평균수명, 교육수준은 상승하고 빈곤율은 감소하여 삶의 질 개선

○ 인구는 1967년 5개국 1.85억 명에서 1999년 10개국 5.08억 명, 2016년 6.34억 명으로 증가. 특히 경제활동 가능인구는 4.3억 명('16)으로 전체 인구의 68%를 차지하는 '젊은 국가'

- 실업률은 1984년 4.1%에서 2005년 6.9%에 이르렀으나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16년 4.1% 기록

○ 도시화율은 1967년 21.5%에서 2016년 49%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빈곤율(PPP 기준 하루 1.25달러 미만으로 생활하는 인구의

비율)은 1990년 47%에서 2015년 14%로 급감

- 빈곤율은 아세안에서 목표로 했던 23.5%를 하회하는 성과 달성
- 보건, 교육예산 확대로 평균 수명이 55.6세('67)에서 70.9세('16)로 상승하였고, 1980년 75%이던 식자율은 2016년 95%에 도달
- GDP 대비 보건과 교육예산 비중은 1999년 각각 2%대에서 2016년에는 4% 중반 수준으로 확대

〈표 2. 사회부문 성과〉

	1967	1984	1995	1997	1999	2005	2010	2016
참여국	ASEAN5	ASEAN6	ASEAN7	ASEAN9	ASEAN10			
인구(천명)	185,087	281,842	416,261	479,997	507,950	551,356	591,047	634,485
도시화율(%)	21.5	30.7	36.4	36.5	37.5	N/A	N/A	49.0
빈곤율(%)	N/A	N/A	39	N/A	38*	22	19	14
영양결핍인구 비중(%)	N/A	N/A	25.8	N/A	23.4	19.1	13.4	8.9
평균수명(세)	55.6	63.0	66.5	67.0	67.4	N/A	N/A	70.9
영아 사망자수 (영아 1천명당)	89	N/A	58	54	50	39	33	26
식자율(%)	N/A	74.5**	84.6***	N/A	91.0****	N/A	92.5	94.9
고등교육율(%)	N/A	N/A	N/A	N/A	18.2	21.3	27.3	36.1

* 2000년 실적, ** 1980년 실적, *** 1990년 실적, **** 2000년 실적

자료: ASEAN Secretariat (2017)

□ 후발 4개국(CLMV: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과 아세안 6개국 간 경제적 격차는 완화 추세

- CLMV의 경제규모는 아세안 6개국의 7.9%('99)에서 13.3%('16)로 증가
 - CLMV의 GDP 규모: U\$421억('99) → U\$2,998억('16)
 - 아세안 6개국 GDP 규모: U\$5,344억('99) → U\$22,488억('16)
- 인당 국민소득도 아세안 6개국의 20.6%('99)에서 37.4%('16)로 증가
 - CLMV의 인당 국민소득: U\$300('99) → U\$1,803('16)
 - 아세안 6개국 인당 국민소득: U\$1,453('99) → U\$4,816('16)

3.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과제

□ 2015년 아세안공동체의 조기 출범으로 일부 부문의 공동체 이행률은 목표 대비 다소 낮은 상황

- 평균 이행률은 92.7%로 경쟁력 있는 경제지역 부문 90.5%, 단일 시장·생산 기반 구축 부문 92.4%임
 - 관세인하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비관세 장벽이 존재하고 서비스·투자·자본 자유화가 미흡한 상황
 - 특히 인프라 투자는 정부의 재원조달 한계로 지연
- 균형 경제발전은 100% 달성하였으나 선언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

〈표 3. 아세안 경제공동체 이행률 및 현재 상황(%)〉

목표	'13.3	'15.10	현재 상황
단일 시장·생산 기반	77.2	92.4	비관세장벽 존재, 서비스·투자·자본 자유화 미흡
경쟁력 있는 경제지역	76.1	90.5	인프라 투자는 정부 재정 한계로 지연
균형 경제발전	77.8	100	전략 부재로 선언적 수준에 불과
세계 경제로의 통합	70.0	100	역외 국가와의 FTA 확대
총계	77.5	92.7	

자료: 이행률은 민혁기(2016)의 재인용 후 POSRI 정리

□ 아세안 연계성(Connectivity) 강화, 특히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이 경제성장과 경제통합 강화를 위한 아세안의 최우선 과제로 부각

- ADB('17)는 아세안이 지속적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프라 수요('16~'30)가 U\$31,470억(연평균 U\$2,100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
 - 특히, 인도네시아의 수요는 동 기간 U\$12,290억(연평균 U\$820억)으로 아세안 전체의 39% 점유
 -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중기개발계획 2015-2019(National Medium Term Development Plan, 2015-2019)'에 근거하여 전력, 신규 유료도로, 항만, 공항 등의 투자 계획을 추진 중

〈표 4. 아세안 인프라 수요('16~'30)〉

	총 필요 투자 규모 (U\$억)	연평균 투자 규모 (U\$억)	GDP 대비 비중 (%)
아세안	31,470	2,100	5.7
인도네시아	12,290	820	6.0

자료: ADB (2017), 'Meeting ASIA's Infrastructure Needs'

- 연계성 강화를 위한 아세안의 노력도 가속화되어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25(MPAC 2025)'를 채택('16.9)하고, 실행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 중
 - MPAC 2025는 3대 추진체계(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 5대 전략부문(지속가능 인프라, 디지털 혁신, 원활한 물류, 규제 혁신, 인적 이동), 15대 이니셔티브로 구성
 - 2017년까지 이행계획 구체화 및 역·내외 국가의 참여 분야를 결정할 계획
- 아세안 각국 정부도 자국에 필요한 인프라 건설을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이 포함된 민관협력방식(PPP)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

4. 시사점

□ 아세안 인프라 시장을 둘러싼 중·일 기업 간 수주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중국은 AIIB를 중심으로 신실크로드펀드, 상하이협력기구 같은 자국 주도의 국제기구 활용, 정상외교, 공적개발원조(ODA) 등을 통하여 자국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를 추진
 - 향후 10년간 아세안을 포함한 전 세계 65개 국가에 정부 자원 U\$1조를 동원하여 인프라 건설을 지원할 계획
 - 중국의 인도네시아 고속철도(자카르타-반둥 구간) 수주 성공 요인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에 지급보증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점이 거론되듯, 중국 정부 차원의 자금 지원이 사업 수주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
- 일본도 ADB와 협조해 향후 5년간 아세안에서 U\$1,100억의 자금을 지원할 계획임. 또한 중국과의 수주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하여 질적 우위를 강조하는 'Quality Infrastructure' 전략으로 전환
 - 일본 정부도 정상외교 등을 통하여 각 국가별로 투자지원을 약속하며

일본기업의 인프라 수주를 측면 지원 중

- 아세안은 한국의 제2 교역·투자·건설수주시장으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한국기업 입장에서는 중국·일본과 차별화되는 비교우위의 새로운 사업전략 마련 필요
 - 인프라 사업의 재원 조달 방안으로 ODA 자금, 한-아세안 협력기금, 한-메콩 협력기금 등으로 산재되어 있는 개발재원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한국이 우위에 있는 디지털 분야를 접목한 전략 추진, 예를 들어 MPAC 2025에서 제시한 디지털과 인프라를 결합한 ‘스마트 인프라’ 전략의 마련
 - 각국 산업정책, 전력정책, 교통정책, 신도시개발정책 등 입안에 한국 정부, 연구기관,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추가 사업기회 확보
 - AIIB, ADB 자금의 활용 확대 및 중국, 일본기업이 주도하는 프로젝트에 파트너로 참여하는 방안 모색
 - 현지 정부와의 네트워크 확대 및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이 자료에 나타난 내용은 포스코경영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자료]

[보고서/논문]

곽성일 외, “아세안 경제통합과 역내 무역투자 구조의 변화 분석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민혁기, “아세안통합 현황과 한-아세안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시사점”, 산업연구원, 2016

이재호, “아세안 연계성 최근 논의와 향후 전망”,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ADB, “Meeting ASIA’s Infrastructure Needs”, 2017

“How Can Asia Finance the Infrastructure It Needs?”, 2017

ASEAN Secretariat, “Celebrating ASEAN: 50 Years of Evolution and Progress”, 2017

BMI Research, “ASIA Infrastructure Report”, 2017

CBRE Research, “Connecting ASEAN: Infrastructure, Integration & Real Estate Growth”,
2017

[홈페이지]

ASEAN (<http://www.asean.org/>)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아시아개발은행 (<http://www.adb.org/>)

아세안통계공식웹사이트 (<http://www.aseanstats.org/>)

한국무역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한-아세안센터 (<http://www.aseankorea.org/>)